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구인구직의
공간적 미스매치 현상의 특성 분석

2015 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 정 현

구인구직의 공간적 미스매치 현상의 특성 분석

지도교수 이 희 연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이 정 현

이정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최 백 중	(인)
부위원장	김 경 민	(인)
위 원	이 희 연	(인)

국 문 초 록

매년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구인구직이 공간적, 직종별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구직자들이 단순히 임금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역,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선호하는 일자리로 점점 더 물러들기 때문이다. 특히 구직자들의 구직 선호조건 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근무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이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인구직의 미스매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업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인구직 자료」와 「산업직업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광역경제권을 단위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Armstrong & Taylor(1981)와 오오하시(2006)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 간 미스매치와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를 단순히 전체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유형별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2013년 동안 지역 간 미스매치와 직업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에

서의 지역 간 미스매치는 전국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지역의 경우 고졸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해당 광역경제권 내의 특정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직자들이 직종을 유지한 채로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직 인원과 구인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의 구직반경이 넓어서 선호하는 직종을 찾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직업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서는 직종 자체를 옮겨야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유형별로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직종을 옮겨야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에서는 직업 간 미스매치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 직업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일자리 내부의 대부분 직종에서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대졸 이상, 고숙련 구인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해당 일자리 내부에서 직종을 이동하여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학력과 숙련도를 낮추어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 유형별로 실업을 유발하는 주된 구조적 실업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실업 해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역별, 일자리 유형별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실업, 구인, 구직, 구조적 미스매치, 지역 간 미스매치,
직업 간 미스매치

학 번 : 2013-22005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내용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8
1. 이론적 배경	8
1) 미스매치의 종류	8
2) 공간 미스매치 가설	9
3) 미스매치의 측정 및 모형	10
2. 선행연구 고찰	13
1) 구조적 미스매치에 관한 실증 분석	13
2)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실증 분석	14
제 3 장 분석 틀과 분석 방법	19
1. 분석 틀	19
2. 지역 간 미스매치 분석 방법	20
3.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방법	24
제 4 장 지역 간 미스매치 분석	27

1. 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실업자 수 추이	27
2. 학력·숙련도에 따른 직종별 지역 간 미스매치 분석	28
3. 소결	35
제 5 장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36
1. 수도권외의 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실업자수 추이	36
2. 학력·숙련도별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37
3. 소결	41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42
1. 결론	42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8

표 목 차

[표 1-1] 통계청 고용보조지표.....	2
[표 2-1] Armstrong&Taylor(1981)와 오오하시(2006)의 미스매치 분석 방법...	12
[표 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스매치 분석 모형.....	19
[표 3-2] 학력 무관 일자리 수 추출을 위한 방법.....	21
[표 3-3] 숙련도에 따른 직종 분류.....	22
[표 4-1] 광역경제권 내 실업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차지하는 비율.....	31
[표 4-2] 각 학력숙련도 직종별 지역 간 미스매치가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32
[표 5-1]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38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UV곡선).....	11
[그림 3-1]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20
[그림 3-2]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결과.....	21
[그림 3-3] 학력-직종별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23
[그림 3-4] 숙련도-직종별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24
[그림 3-5]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25
[그림 3-6] 학력별 및 숙련도별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26
[그림 4-1] 2013년 일자리 유형별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	27
[그림 4-2] 2008-13년 광역경제권 별 구인·구직·실업자 수.....	28
[그림 4-3] 고졸이하·대졸이상 일자리의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29
[그림 4-4] 고숙련·저숙련 일자리의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29
[그림 4-5] 시도별 건설관련직의 구인인원, 구직자수.....	34
[그림 5-1] 수도권외의 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실업자 수.....	36

[그림 5-2] 전체 일자리에서의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37
[그림 5-3] 고졸이하·대졸이상 일자리의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40
[그림 5-4] 고숙련·저숙련 일자리의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40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매년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청년·고령층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까지 늘리려는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꾸준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를 보면 평균 3~4%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 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실업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려하는 실업자와는 다르게 집계된다. 집계되는 실업자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업자 기준과는 많이 다르며, 실제 우리가 실업자라고 여기는 사람 수보다 훨씬 더 적게 집계된다. 최근 통계청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통하여 새롭게 고용보조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집계되던 공식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 구직자를 함께 집계하여,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가 실업자라고 여기는 ‘체감 실업자’ 또는 ‘실질 실업자’와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4년 10월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고용보조지표 1의 실업률이 4.4%, 고용보조지표 2의 실업률이 9.0%, 고용보조지표 3의 실업률이 10.1%로 집계되었다. 특히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

표 1-1. 통계청 고용보조지표

통계청 고용보조 지표	
고용보조지표1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2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3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100$
관련 용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출처 : 통계청 2014년 10월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 3이 10.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공식적인 실업자 수 외에도 약 202만 명의 유사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높은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면 해결될 수 있는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실업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인과 구직이 미스매치되는 경우 일자리를 늘려도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최근 들어 구직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조건에서 임금수준이 1순위였다면, 최근에는 단순히 높은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근무환경, 근무지역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하고 구직활동을 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벼룩시장구인구직에서 2014년 5월

에 20~60대 구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구직조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직자들이 중요시하는 구직 조건으로 근무지역(80%), 급여(19.4%), 직종(16.8%)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의 특정 직종을 선호하여 몰려드는데 비해,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넓게 퍼져있는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해 구인인원과 구직자수에 의한 발생 가능한 실업자 수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된다.

실업을 주제로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구직자 수에 비해 일자리 수가 부족하여 실업이 발생하는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구조적 실업에 관하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업난이 매우 심각하고, 구직자들의 학력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인구직의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며, 실업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단순히 전체 일자리에 대하여 분석한 것에 비해, 지역 특성뿐 아니라 일자리 특성에 따라서도 미스매치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일자리를 학력별, 숙련도별로 유형화한 후에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에 따라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추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들의 근무지역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각 지역, 일자리 유형에 따라 공간 미스매치 현상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지역-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의 차이점을 보고자 한다.

둘째,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적게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의 직업 간 미스매치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실업 발생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한 후에 일자리 유형별로 분석을 하여 구직자들이 직업 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해야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08년~2013년 「워크넷 구인구직」 자료이다. 워크넷(work-net)은 1987년에 취업알선 시스템 서비스로 시작이 되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워크넷(work-net)이라는 이름으로 구인·구직정보와 직업·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용정보 웹사이트이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취업포털인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정보와 전국의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군·구 등에서 입력한 일자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하고 있다(양지윤, 2012). 이번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워크넷 구인구직 자료는 이러한 워크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도단위로 학력-직종(소분류)에 따른 신규 구인인원, 신규 구직자수, 취업건수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말(12월)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2008년부터 2013년으로, 공간 단위는 수도권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의 광역경제권 단위로 설정하였다. 시도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상호인접한 지역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광역경제권이 아닌 노동시장권(local labour market)을 단위로 설정하고 분석한다면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구인·구직 데이터가 시·도 단위로만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시도의 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광역경제권을 공간단위로 하여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만 15세 이상 인구 101,674명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학력, 전공 세분류, 직업 소분류, 소득수준 등의 개인 정보를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를 학력별로 분류하는 데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1장에서는 국내의 심각한 실업난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역별, 일자리 유형별로 차별화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실업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하여진 연구들도

단순히 전체 일자리에 대하여 분석하여 일자리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고,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일자리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mstrong & Taylor(1981)와 오오하시(2006)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간 미스매치를 학력-직종(중분류), 숙련도-직종별(중분류) 일자리로, 직업 간 미스매치를 학력, 숙련도별 일자리로 분석을 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광역경제권 별로, 일자리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졸이상, 고숙련 일자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낮게 나타났지만, 고졸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는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지역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가 적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직업 간 미스매치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직업 이동에 대한 설명을 더하기 위하여 학력별, 숙련도별로 일자리 유형을 분류한 후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에 대한 실업은 낮게 나타난 반면 직업 간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숙련도와 학력을 낮추어 직업을 이동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앞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지를 요약정리하고, 실업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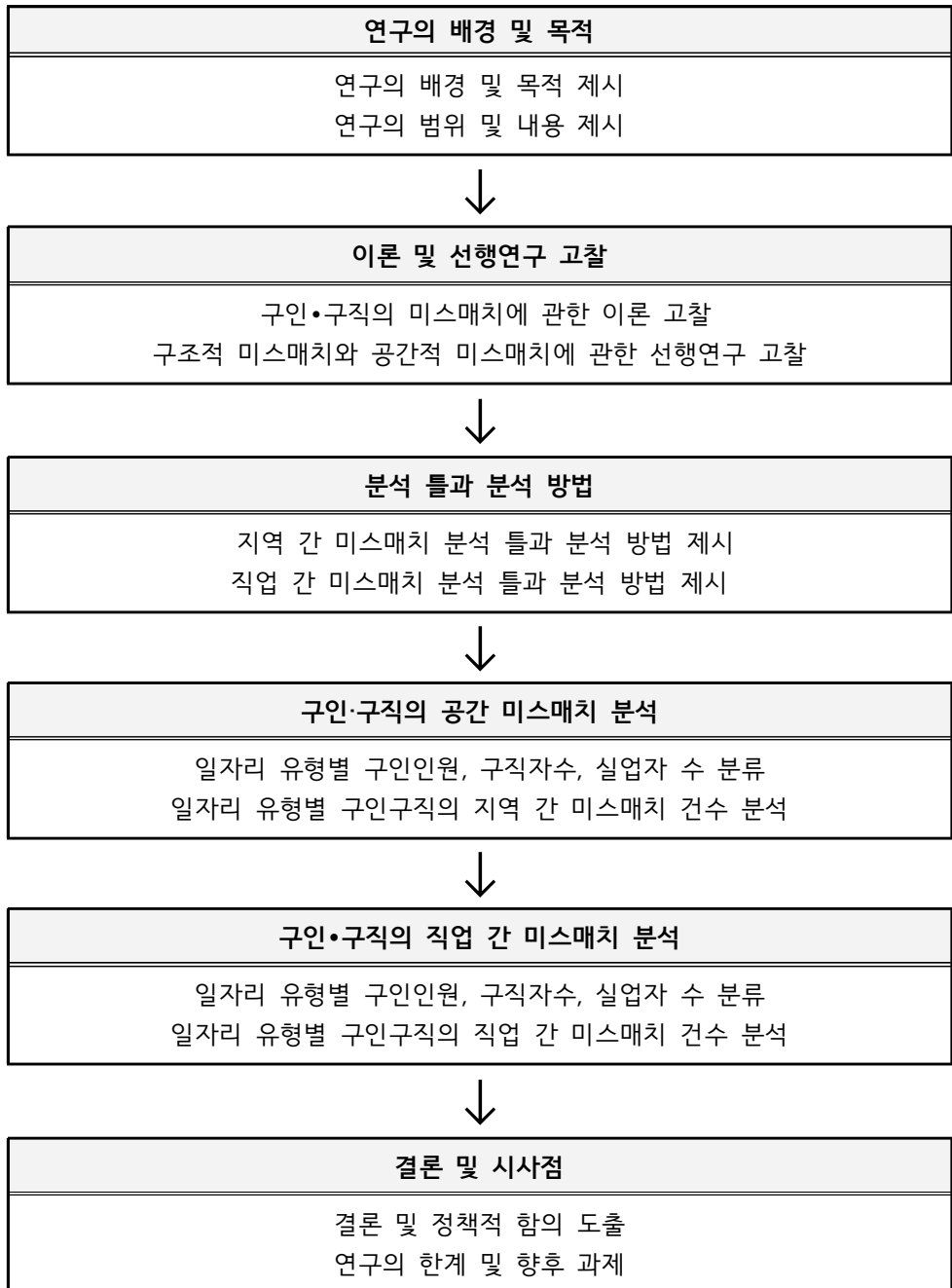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1) 미스매치의 종류

실업을 발생시키는 미스매치의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demand-deficit mismatch), 구조적 미스매치(structural mismatch), 그리고 마찰적 미스매치(frictional mismatch)이다.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란 구직자에 비하여 일자리 수가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말한다.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된다.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인 일자리의 수를 증가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전용석 외, 2012).

구조적 미스매치란 흔히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부족하거나, 기업의 구인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마땅한 노동자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Armstrong & Taylor(1981)는 이러한 구조적 미스매치를 직업 간 미스매치, 지역 간 미스매치, 직업 및 지역 간 미스매치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직업 간 미스매치란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일자리(직종)를 옮김으로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구인·구직의 직업 간 미스매치를 말하며, 지역 간 미스매치는 일자리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실업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를 말한다. 또한 직업 및 지역 간 미스매치는 지역과 직업을 동시에 이동을 해야 해소할 수 있는 미스매치를 말한다(장재호 외, 2008). 이러한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거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인

제를 유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전용석 외, 2012).

마지막으로 마찰적 미스매치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발생하는 일시적인 미스매치 현상을 말한다. 마찰적 미스매치는 일자리 수준에 맞는 인재가 없어서 발생하는 구조적 미스매치와는 달리, 일자리 수준에 맞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다. 마찰적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노동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공간 미스매치 가설(Spatial Mismatch Hypothesis)

공간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가설은 Kain(1986)이 흑인 폭동현상을 구인과 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1960년대 Los Angeles(1965년), Chicago(1966년), Newark(1967년)의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흑인 거주지(게토)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에 폭동의 원인에 대하여 Kerner 위원회는 높은 실업률과 공공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도 때문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Kain(1968)은 흑인 폭동의 원인에 대하여 좀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중심부에 위치한 게토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흑인들이 이들이 주로 찾는 저숙련 일자리가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함께 교외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흑인들을 실업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흑인들의 폭동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Kain(1968)의 주장은 그 당시 흑인의 빈곤을 단순히 인종차별의 문제로 바라만 보았던 시각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이는 구인·구직의 공간미스매치 가설의 시작이 되었다.

공간 미스매치 가설의 핵심은 일자리 확산(job sprawl, job decentralization)과 노동자들의 주거 이동성 제한(residential immobility, residential segreg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공급의 측면인 일자리를 보면 도시가 확장되면서 사람들도 점차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

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도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에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도심부에 거주하는 저숙련 흑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있는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인종적 차별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교외지로 주거 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노동 공급측면의 일자리 이동과 노동수요측면의 저숙련 흑인노동자들의 이동이 일치하게 않게 되면서 공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미스매치의 측정모형

(1)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 UV곡선)

미스매치(실업)를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UV곡선) 방법이다. 베버리지 곡선은 1940년 영국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고안한 곡선으로, 빈 일자리(vacancy)와 실업(unemployment)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UV곡선을 통하여 실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demand-deficit unemployment)과 구조적·마찰적 실업(frictional & structural unemployment)의 두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할 수 있다.

UV곡선을 보면 x축은 빈 일자리, y축은 실업이며 빈 일자리와 실업이 서로 반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U=V$ 사선과 UV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U_0 이라고 하면, $U_1 - U_0$ 가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며, U_0 가 구조적·마찰적 실업이 된다.

UV곡선의 이동에 따라서 수요부족 실업과 구조적·마찰적 실업이 변화하게 된다. 사선 $U=V$ 를 기준으로 상향 이동하게 되면 수요부족실업은 감소하고 구조적·마찰적 실업이 증가하게 되며, 하향 이동하게 되면 수요 부족실업은 증가하고 구조적·마찰적 실업은 감소하게 된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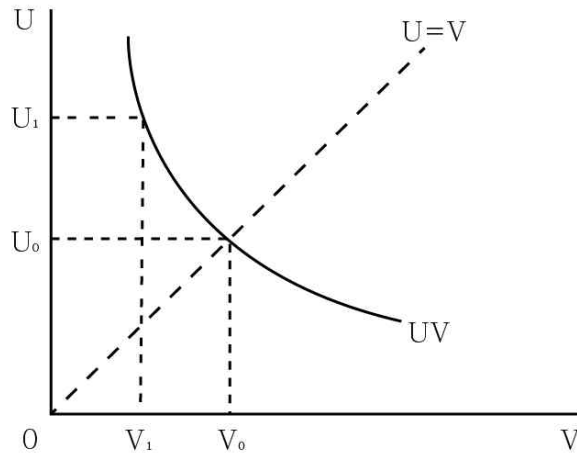


그림 2-1.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UV곡선)

UV분석 방법은 실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고, 각 실업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스매치(실업)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었다. 하지만 UV분석 방식은 실업을 노동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과 구조적·마찰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나누어서는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Armstrong & Taylor(1981)의 방법과 오오하시(2006)의 방법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Armstrong & Taylor(1981)의 방법이 있다. Armstrong & Taylor는 UV분석 방법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미스매치와 마찰적 미스매치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이들은 전체 실업(U)을 마찰적 실업(마찰적 미스매치, U_f), 구조적 실업(구조적 미스매치, U_s), 노동 수요부족 실업(노동 수요부족 미스매치, U_d)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Armstrong & Taylor 방법도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구조적 미

스매치를 분석하는 경우 지역 간 미스매치와 직업 간 미스매치를 계산한 순서에 따라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직업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Ohashi(2006)는 Armstrong & Taylor(1981)의 구조적 미스매치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표 2-1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실업자 수는 구직자수에서 취업자 수를 빼서 구할 수 있다. 실업은 세부적으로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 마찰적 미스매치, 구조적 미스매치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구조적 미스매치는 다시 세부적으로 직업 간 미스매치(U_{s-occ}), 지역 간 미스매치(U_{s-city}), 직업 간 및 지역 간 미스매치($U_{s-o.c}$)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각 유형별 미스매치 값을 구하기에 앞서 취업가능건수(EP)를 알아야 하는 데, 취업가능건수는 미스매치가 없다고 가정할 때의 가능한 취업건수를 말한다. 취업가능건수는 구인인원과 구직자수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표 2-1 참조).

표 2-1. Armstrong & Taylor(1981)와 오오하시(2006)의
미스매치 분석 방법

$$U = \text{구직자수} - \text{취업건수}$$

$$U = U_f + U_s + U_d$$

$$U_s = U_{s-occ} + U_{s-city} + U_{s-o.c}$$

$$EP = \min(V, U)$$

$$U_f = \sum (EP_i - E_i)$$

$$U_d = \text{구직자수} - \text{구인인원}$$

$$U_{s-occ} = EP - \sum EP_i$$

$$U_{s-city} = EP - \sum EP_j$$

$$U_{s-occ} = U - U_D - U_f - U_{s-city} + U_{s-o.c}$$

※ 자료 : Armstrong & Taylor(1981)와 오오하시(2006) 분석 모형을 재정리함.

마찰적 실업(U_f)은 직업별 취업가능건수(EP_i)와 직업별 취업건수(E_i)의 차이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 수요부족 실업(U_d)은 전체 구직자수와 전체 구인인원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실업(U_s)을 살펴보면 직업 간 미스매치(U_{s-occ})는 직업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취업가능건수인 총 취업가능건수(EP)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했을 때 직업별 총 취업건수(EP_i)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김을식, 2013). 지역 간 미스매치(U_{s-city})는 전국의 총 취업가능건수(EP)에서 지역별 총 취업건수(EP_j)를 빼서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 및 지역 간 미스매치($U_{s-o,c}$)는 실업자 수에서 직업 및 지역 간 미스매치를 제외한 모든 미스매치를 빼서 구할 수 있다(표 2-1 참조).

2. 선행연구 고찰

1) 구조적 미스매치에 관한 실증 분석

선행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적어서 실업이 발생하는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김을식 외, 2012; 김을식, 2013; 배진한, 2012; 장재호 외, 2008; 전용석 외, 2005).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말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점차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용석 외, 2005). 2012년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는 대전, 강원, 서울, 전북, 인천, 경북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특히 광역경제권 단위로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에서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났다(김을식, 2013; 장재호 외, 2008).

반면에 구인과 구직이 직종·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적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국내 구조적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구조적 미스매치가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와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요 부족형 미

스매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구조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을식, 2013; 장재호 외, 2008; 전용석, 2005). 2012년 구조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을 시도별로 보면 경남, 충남, 경기, 울산, 충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광역경제권 단위는 충청권과 동남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김을식 외, 2012; 김을식, 2013; 장재호 외, 2008). 그런데 구조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구조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에 관해 연구한 김을식 외(2012), 김을식(2013), 장재호 외(2008)의 연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적 미스매치가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와 마찰적 미스매치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앞선 연구에서 구조적 미스매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구조적 미스매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Armstrong & Taylor(1981)의 방식을 활용하여 구조적 미스매치를 분석하였는데, 직업 간 미스매치만을 구조적 미스매치로 간주하고 지역 간 미스매치는 없다고 가정하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구조적 미스매치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지역 간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는 직업 간 미스매치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서 직업 간 미스매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2)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실증분석

(1) 직주 미스매치와 구인·구직 미스매치

Kain(1981)의 ‘공간 미스매치 가설’이 등장한 이후,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다양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직장(job)과 거주지(housing)가 일치하지 않는 직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

적으로 도심부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지역의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와 미스매치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상호, 2011; Covinton, 2009; Stoll, 2006). 이 밖에도 거주지와 일자리 간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와는 달리 빈 일자리(job vacancy)와 고용(employment), 구인과 구직의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수행되었다.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김용현(2012), 장재호 외(2008), 전용석 외(2005), 최은영(2004)의 연구가 있다. 김용현(2012)과 최은영(2004)은 구직자들의 이동성에 주목을 하였는데, 특히 20대의 대졸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주 현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공간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양준석 외(2012)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와 반대되는 개념인 구인·구직의 결합 효율성에 주목하여 지역별 미스매치 현상을 연구하였고, 서울의 결합 효율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이 밖에 전용석 외(2005)는 구조적 미스매치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을 UV분석을 통하여 시계열적으로 구조적 미스매치의 변화양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 구직 입장의 연구와 구인 입장의 연구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 등장한 ‘공간 미스매치 가설’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제한된 주거 이동성’과 ‘일자리 확산’이 공간 미스매치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미스매치 연구는 구직(노동의 공급) 입장에서의 연구와 구인(노동의 수요) 입장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구직 입장의 연구는 ‘일자리 접근성(job accessibility)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 ‘주거의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와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 ‘일자리 탐색(job search)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 ‘노동자들의 소득(income)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접근성과 미스매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도심부에 거주

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일자리로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통근비용, 통근시간 등을 측정하여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Covington, 2009). 이 연구에서 접근성을 통근비용, 통근시간으로 단순하게 측정하였다. 최근에는 교통수단별로 접근성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Grengs, 2010).

주거지역의 분리와 미스매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도심부에 특정 사회계층의 주거지역이 고립(분리)되어 있는 정도가 미스매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Covington, 2009; Liu and Painter, 2011; Stoll, 2006). 또한 일자리 탐색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도심부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질수록(공간 미스매치가 심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구직자의 취업률과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toll, 1998). 노동자들의 소득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에는 도심부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가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이상호, 2011). 마지막으로 일자리 확산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자의 교외지역으로의 확산이 도심부의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거주지간의 미스매치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toll, 2006; Weber and Sultana, 2008).

이와 같이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는 구직 입장의 ‘일자리 접근성과 미스매치’, ‘주거분리와 미스매치’, ‘일자리 탐색과 미스매치’, ‘노동자의 소득과 미스매치’, 구인 입장의 ‘일자리 확산과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공간 미스매치 연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도심부의 사회취약계층은 낮은 일자리 접근성과 높은 주거공간의 고립도, 및 일자리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도, 그리고 일자리 확산에 비해 낮은 주거이동성을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겪는 공간 미스매치 현상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Covington, 2009; Grengs, 2010; Liu and Painter, 2011; Stoll, 1998;

Stoll, 2006; Weber and Sultana; 2008).

그러나 국내 공간 미스매치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위와 같은 연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는 외국과 국내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이 다른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간 미스매치 가설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장되고 인구가 교외로 이동함에 따라 일자리도 같이 교외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제약으로 교외로 이동하지 못한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일자리와는 분리되는 미스매치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 확장되고 교외화가 되어도 일자리가 뚜렷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미국과 같이 도시 주변지역으로 일자리가 이동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시가 확장되고 교외화가 진전되면서 통근권이 오히려 확산된다(윤윤규 외, 2010; 이상호, 2008).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근하거나, 서울 내에 거주하면서 경기도로 통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에서 구직자들의 서울 및 대도시 선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과잉학력이 되면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인 조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매력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충족되어 있는 서울 및 대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게 된다(김을식 외, 2012). 일자리는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구직자들은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몰려들면서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간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의 공간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는 구직입장의 미스매치 관련 연구에 호적을 두고 있으며 구인 입장의 미스매치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구직입장의 미스매치 관련 연구를 보면 20대 대졸자들의 수도권 이주현상에 대하여 연구한 김용현(2012)과 최은영(2004)의 연구가 있다. 아직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황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

이며, 구인·구직 결합효율성을 통하여 미스매치를 분석한 양준석 외 (2012)의 연구와 UV분석을 통하여 마찰적·구조적 미스매치의 변화를 연구한 전용석 외(2005)의 연구가 있다.

제 3 장 분석 틀과 분석 방법

1.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와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기 위해 Armstrong & Taylor(1981)의 미스매치 분석 모형을 좀 더 계산하기 쉽게 수정한 오오하시(2006)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Armstrong & Taylor(1981)와 오오하시(2006)는 미스매치 유형별로 각각 미스매치 건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와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를 광역경제권 별로 산출하였다(표 3-1 참조).

먼저 각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으로 지역 간 미스매치 현상이 적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였다. 지역 간 미스매치는 일자리를 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일자리)-직종(중분류), 숙련도(저숙련, 고숙련 일자리)-직종(중분류)별로 유형화 한 후에 분석을 하여, 각 일자리 유형의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직업 간 미스매치는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후에 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일자리), 숙련도(저숙련, 고숙련 일자리)에 따라 일자리를 유형화하고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여, 직업 간 미스매치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직업이동을 분석하였다.

표 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스매치 분석 모형

각 미스매치 유형별 미스매치 건수 분석 모형
취업가능건수 = min(구인인원, 구직자수)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 전체 취업가능건수 - \sum_i 직업i의 취업가능건수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 전체 취업가능건수 - \sum_i 지역i의 취업가능건수

※ 출처 : Armstrong & Taylor(1981), 오오하시(2006).

2. 지역 간 미스매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유형별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는데 있어 단순히 전체 일자리로 분석을 하는 경우 실제 지역 간 미스매치와는 다른 결과를 얻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는 것은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광역경제권 내에 여러 개의 시도가 있을 때, 각 시·도에 모든 일자리를 합한 동질적인 일자리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이때 각 시·도의 구인인원과 구직자수는 모든 일자리의 구인인원과 구직자수를 합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림 3-2]는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특정 광역경제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시도에 동질적인 일자리만 있다고 가정하고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를 구하게 되면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가 거의 없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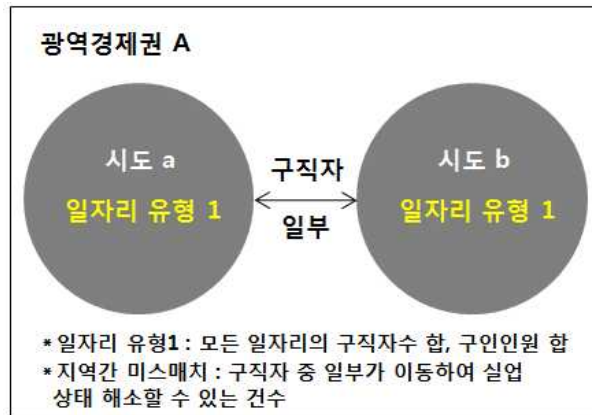


그림 3-1.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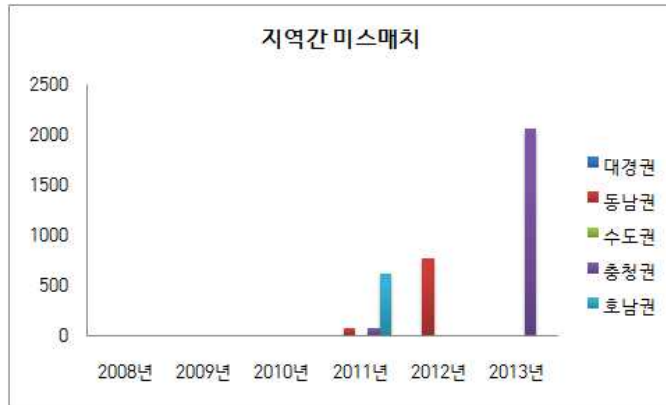


그림 3-2.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결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일자리 유형별 지역 간 미스매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학력별 일자리는 크게 고졸 이하 구직자들을 뽑는 고졸 이하 일자리와 대졸 이상의 구직자들을 뽑는 대졸 이상의 일자리로 나누었다. 그런데 구직자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나누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일자리 경우는 단순히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나눌 수 없었다. 이는 학력 무관하게 구직자들을 구하는 일자리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S 자료의 직종별 취업자들의 평균 학력수준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표 3-2와 같은 방식으로 학력 무관 일자리를 고졸 이하의 일자리와 대졸 이상의 일자리로 분류하였다.

표 3-2. 학력 무관 일자리 수 추출을 위한 방법

일자리 분류 방식
$\text{고졸이하 일자리} = (\text{초졸} + \text{중졸} + \text{중졸} + \text{무관} + \text{대졸} + \text{전문대졸} + \text{대학원졸_석사} + \text{대학원졸_박사}) \times (\text{OES_해당 직종의 고졸이하 취업자 비율})$
$\text{대졸이상 일자리} = (\text{초졸} + \text{중졸} + \text{중졸} + \text{무관} + \text{대졸} + \text{전문대졸} + \text{대학원졸_석사} + \text{대학원졸_박사}) \times (\text{OES_해당 직종의 대졸이상 취업자 비율})$

표 3-3. 숙련도에 따른 직종 분류

숙련도별 일자리	총	직종 소분류 (코드)
고속련 일자리	총 65 개	195, 164, 232, 227, 152, 144, 192, 197, 33, 102, 206, 226, 156, 223, 153, 46, 17, 13, 161, 191, 141, 151, 65, 15, 222, 204, 203, 85, 63, 87, 171, 71, 31, 86, 202, 26, 21, 41, 83, 43, 23, 221, 84, 43, 23, 221, 84, 44, 205, 73, 51, 12, 81, 42, 18, 211, 45, 82, 201, 61, 181, 19, 22, 62, 92, 16, 11, 194, 14
저숙련 일자리	총 73 개	101, 24, 32, 48, 53, 66, 67, 64, 52, 123, 47, 127, 124, 88, 147, 234, 131, 142, 143, 91, 185, 112, 186, 235, 165, 155, 213, 113, 93, 27, 145, 132, 154, 103, 162, 25, 68, 94, 72, 159, 193, 166, 121, 115, 104, 95, 29, 105, 229, 146, 111, 28, 212, 214, 231, 126, 173, 196, 233, 167, 228, 224, 158, 114, 125, 163, 122, 182, 183, 225, 172, 157, 184

※ 출처 : OE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박유진(2014)의 방법을 적용함

또한 숙련도별로 일자리를 나눔에 있어서는 박유진(2014)의 숙련도에 따른 직종계층 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다. 박유진(2014)의 연구에는 직종계층을 숙련도에 따라 숙련계층과 저숙련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각 계층에 속하는 일자리의 직종(소분류)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고속련 일자리(총 65개 직종 소분류)와 저숙련 일자리(총 73개 직종 소분류)로 분류하였다(표 3-3 참조).

이렇게 일자리를 학력별로 고졸 이하의 일자리와 대졸 이상의 일자리, 숙련도별로 고속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로 분류한 후, [그림 3-3]과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직종(소분류)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방하남(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2008년에 직업이동을 함에 있어 동일 직종 중 분류 내에서 머무는 경우가 86.3%이며, 다른 직종 중분류로 이동하는 경우는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일자리를 더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학력별(고졸 이하, 대졸 이상)-직종(중분류), 숙련도별(고속련, 저숙련)-직종(중분류)으로 분류하였고, 각 일자리 유형의

지역 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내에서 서울에서 ‘대졸이상’의 조건의 구직자를 뽑는 ‘관리직’(직업 중분류)에서 구직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실업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에 같은 시기에 동일 광역경제권 내의 다른 시도인 경기도에는 ‘대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직’에서 구직자들이 몰리지 않아서 오히려 구인인원이 남았다고 한다. 이때 서울의 ‘대졸 이상’의 구직자를 뽑는 ‘관리직’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사람 중 일부가 경기도에 와서 ‘대졸 이상’, ‘관리직’ 일자리에 지원을 한다면, 이전 사람들은 실업상태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정 광역경제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도 사이에서 동일 학력-직종(중분류)의 일자리에 서 구직자들이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를 지역 간 미스매치로 판단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숙련도-직종(중분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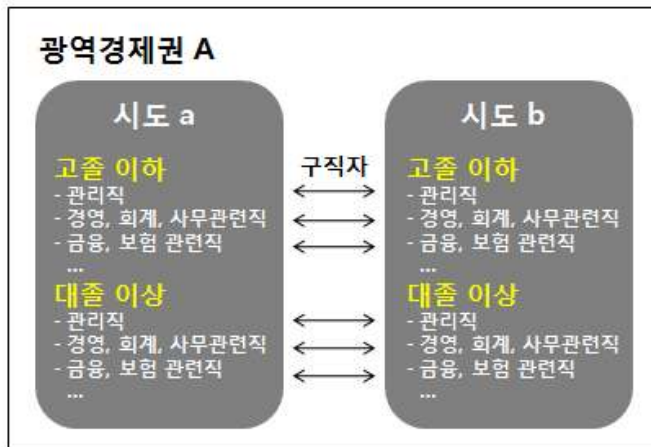


그림 3-3. 학력-직종별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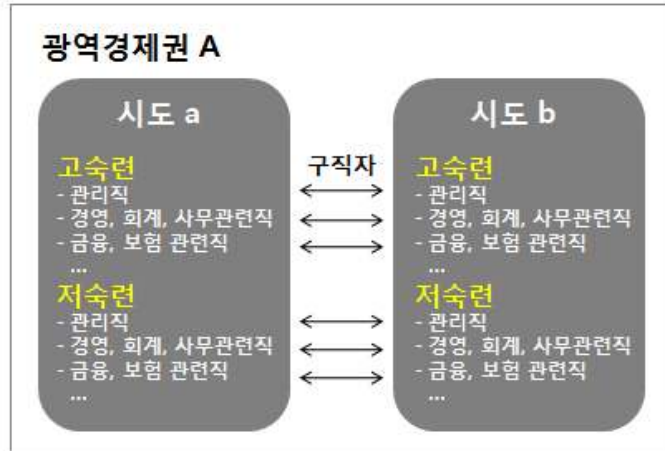


그림 3-4. 숙련도-직종별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분석

3.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방법

직업 간 미스매치는 동일 광역경제권 내의 다른 직종(소분류)의 일자리로 옮겼을 경우에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수를 말한다(그림 3-5 참조). 직업 간 미스매치는 광역경제권 별로 직업 간 미스매치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전체 일자리(소분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지역 간 미스매치의 경우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전체 일자리에 대한 분석을 제외를 시켰는데,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이는 직업 간 미스매치와 지역 간 미스매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업 간 미스매치를 지역 간 미스매치의 경우와 같이 학력별, 숙련도별로 일자리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면, 학력별, 숙련도별로 분류된 일자리 내부에서만 이동하여 해소될 수 있는 미스매치만을 측정하게 된다. 반면에 전체 일자리로 측정할 경우에는 다른 학력, 다른 숙련도의 일자리로 이동하여 실업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위 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_대졸이상의 일자리'에서 구직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실업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관련 관리자_고졸 이하'의 일자리에 오�히려 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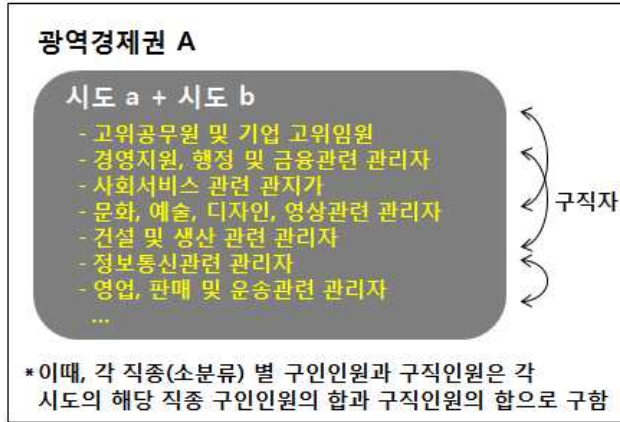


그림 3-5.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들이 몰리지 않아서 구인인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전자의 일자리에 구직활동을 하던 구직자 중에 일부가 후자의 일자리로 이동하여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일자리 유형의 일자리로 이동하여 실업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미스매치 건수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학력별 일자리(고졸 이하_일자리, 대졸 이상_일자리)와 숙련도별 일자리(고숙련_일자리, 저숙련_일자리)에서 직업 간 미스매치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 지 분석하였다. 이때 학력별 일자리에서의 직업 간 미스매치는 일자리를 고졸 이하의 일자리와 대졸 이상의 일자리로 나누었을 때, 고졸 이하의 일자리 내부에서 직업을 옮겨서 실업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미스매치 건수와 대졸 이상의 일자리 내부에서 직업을 옮겨서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스매치 건수 각각을 의미한다. 숙련도별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숙련 일자리 내부에서 일자리를 옮겨서 실업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미스매치 건수와 저숙련 일자리 내부에서 일자리를 옮겨서 실업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미스매치 건수 각각을 의미한다(그림 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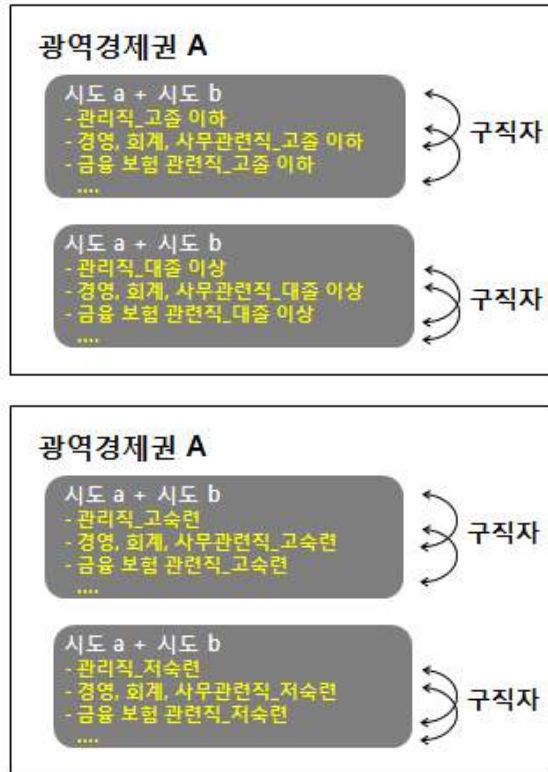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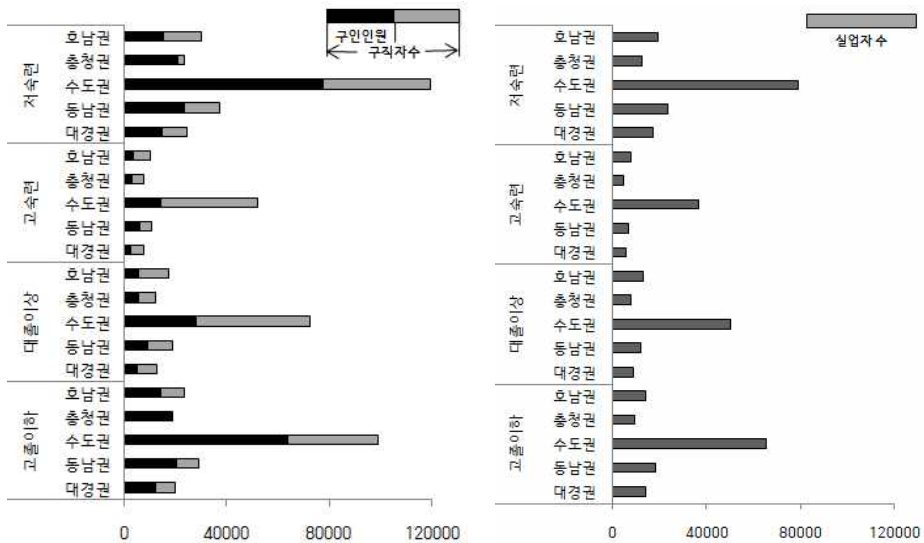


그림 3-6. 학력별 및 숙련도별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제 4 장 지역 간 미스매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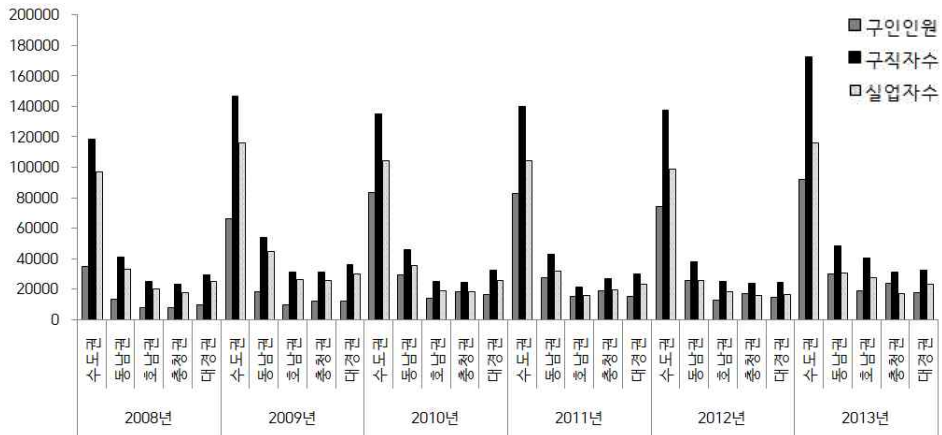
1. 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실업자 수 추이

2013년 일자리 유형별 구인인원과 구직자수를 보면 고졸 이하 일자리에서 구인인원과 구직자수가 대졸 이상 일자리에서의 구인인원과 구직자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 참조). 또한 저숙련 일자리의 구인인원과 구직자수가 고숙련 일자리의 구인인원과 구직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광역경제권 단위로 보면 수도권에서 구인인원과 구직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201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그림 4-2 참조).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자료」

그림 4-1. 2013년 일자리 유형별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자료」

그림 4-2. 2008-13년 광역경제권 별 구인·구직·실업자 수

각 일자리 유형별 실업자 수를 보면 고졸 이하의 일자리가 대졸 이상의 일자리보다 높게 나타나며, 저숙련 일자리가 고숙련 일자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1 참조). 여기서 실업자 수는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자수에서 취업건수를 뺀 값이다. 이를 광역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가장 실업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13년 동안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그림 4-2 참조).

2. 학력·숙련도에 따른 직종별 지역 간 미스매치 분석

학력-직종별(소분류) 일자리, 숙련도-직종별(소분류) 일자리에서 각각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그림 4-3]과 [그림 4-4]와 같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 간 미스매치가 일부 감소한 시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퍼져있음에도 구직자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몰리면서 실업이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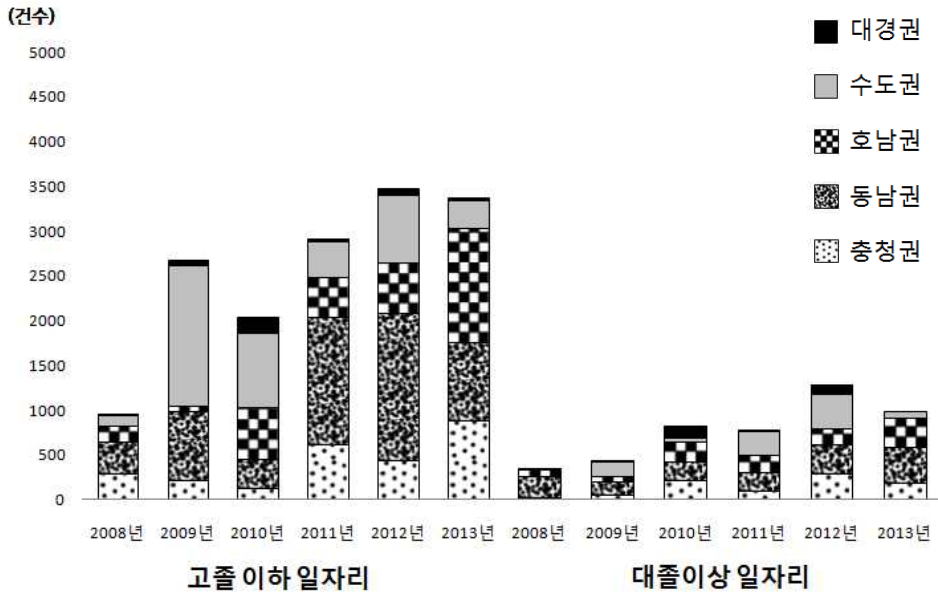


그림 4-3. 고졸이하·대졸이상 일자리의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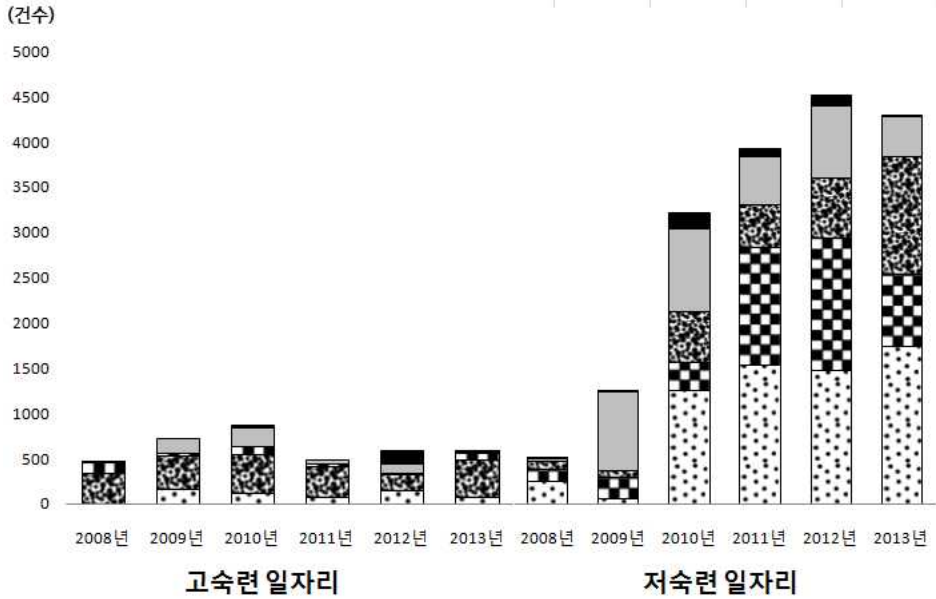


그림 4-4. 고숙련·저숙련 일자리의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

또한 일자리 유형별로 지역 간 미스매치를 비교해 보면 고졸 이하의 일자리에서 대졸 이상의 일자리 보다 더 많은 지역 간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보다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4-3, 그림 4-4 참조). 학력별 일자리를 자세히 보면 2008년 고졸 이하의 일자리에서 구직자수가 구인인원의 3.02배, 대졸 일자리에서 구직자수가 구인인원의 3.44배로, 대졸 이상의 일자리에서 구인인원과 구직자수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08~13년 기간을 보면, 구직자들의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졸 이상의 구직자들은 평균 매년 1.11배 증가하는 반면, 고졸이상의 구직자들은 평균 1.07배로 대졸 이상 구직자들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이와 반대로 대졸 이상의 일자리가 매년 1.12배, 고졸 이하의 일자리가 1.25배로 오히려 고졸 이상의 일자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대졸이상의 일자리의 구인인원과 구직자수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구직자수가 구인인원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을 옮겨서도 실업상태를 해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숙련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1.11배, 저숙련 구직자가 1.07배로 고숙련 구직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수는 고숙련 일자리에서 1.18배, 저숙련 일자리에서 1.25배로 오히려 저숙련 일자리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숙련 일자리에서 대졸이상 일자리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구직자수가 구인인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각 광역경제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살펴 보면 표 4-1과 같다.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에서는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대졸 이상, 고숙련 구인인원보다 거의 모든 광역경제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일자리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 광역경제권의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해당 광역경제권에서 발생하는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0~1% 정도이다.

반면에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의 지역 간 미스매치는 상당히 다르

표 4-1. 광역경제권 내 실업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차지하는 비율

고졸이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충청권	300 (2%)	216 (1%)	126 (1%)	625 (3%)	438 (3%)	893 (5%)
동남권	348 (1%)	773 (0%)	334 (3%)	1425 (3%)	1644 (3%)	867 (5%)
호남권	180 (1%)	57 (2%)	573 (1%)	441 (4%)	571 (6%)	1271 (3%)
수도권	129 (0%)	1569 (1%)	829 (1%)	395 (0%)	754 (1%)	319 (0%)
대경권	3 (0%)	72 (0%)	185 (1%)	36 (0%)	80 (0%)	22 (0%)
대졸이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충청권	26 (0%)	59 (0%)	224 (1%)	99 (0%)	288 (2%)	193 (1%)
동남권	239 (0%)	141 (0%)	199 (1%)	212 (1%)	328 (1%)	394 (1%)
호남권	79 (1%)	66 (0%)	223 (1%)	194 (1%)	170 (1%)	323 (1%)
수도권	2 (0%)	154 (0%)	48 (0%)	258 (0%)	384 (0%)	72 (0%)
대경권	0 (0%)	16 (0%)	129 (0%)	21 (0%)	107 (1%)	0 (0%)
고속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충청권	3 (0%)	166 (1%)	126 (1%)	75 (0%)	150 (1%)	76 (0%)
동남권	347 (1%)	376 (0%)	419 (0%)	344 (0%)	186 (0%)	409 (0%)
호남권	127 (1%)	26 (1%)	89 (1%)	26 (1%)	3 (1%)	81 (1%)
수도권	2 (0%)	160 (0%)	210 (0%)	43 (0%)	104 (0%)	29 (0%)
대경권	1 (0%)	0 (0%)	37 (0%)	0 (0%)	148 (1%)	2 (0%)
저숙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충청권	256 (1%)	64 (0%)	1276 (7%)	1560 (8%)	1497 (9%)	1768 (10%)
동남권	142 (0%)	237 (0%)	306 (3%)	1311 (3%)	1469 (4%)	799 (5%)
호남권	84 (0%)	78 (1%)	575 (1%)	474 (4%)	683 (6%)	1306 (3%)
수도권	46 (0%)	887 (1%)	924 (1%)	535 (1%)	794 (1%)	456 (0%)
대경권	4 (0%)	4 (0%)	175 (1%)	87 (0%)	129 (1%)	9 (0%)

※ 이 때 ()는 각 광역경제권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를 그 해의 해당 광역경제권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수로 나눈 값이다.

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경제권별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을 보면 2013년 충청권의 경우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전체 실업의 5%가 고졸 이하의 일자리에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것이며, 동남권에서는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5%가 고졸 이하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013년에 충청권 저숙련 일자리에에서 10%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청권 저숙련 일자리에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미스매치를 줄이기만 해도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10%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표 4-1 참조).

5개의 광역경제권 중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많이 발생한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을 대상으로 2013년 어떤 직종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났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졸 이하의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의 건설 관련 직에서 미스매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 관련

표 4-2. 각 학력/숙련도-직종별 지역 간 미스매치가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광역경제권	일자리	코드	소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충청권	고졸이하	14	건설 관련직	0%	0%	0%	7%	21%	35%
		22	환경, 인쇄, 목재	0%	0%	19%	2%	7%	13%
		23	농림어업 관련직	60%	0%	0%	48%	10%	22%
	학력별_지역간	미스매치 건수 합계		326	275	350	724	726	1086
	저숙련	14	건설 관련직	0%	0%	0%	3%	10%	21%
		22	환경, 인쇄, 목재	0%	0%	81%	51%	66%	53%
숙련도별_지역간	미스매치 건수 합계		259	230	1402	1635	1647	1844	
동남권	고졸이하	14	건설 관련직	0%	0%	0%	0%	13%	25%
		22	환경, 인쇄, 목재	0%	0%	34%	74%	50%	32%
		15	기계관련직	6%	5%	0%	3%	4%	14%
	학력별_지역간	미스매치 건수 합계		587	914	533	1637	1972	1261
	고숙련	16	재료관련직	64%	60%	31%	12%	4%	24%
	저숙련	14	건설 관련직	0%	0%	0%	0%	8%	13%
		21	식품가공 관련직	0%	0%	31%	74%	62%	33%
	숙련도별_지역간	미스매치 건수 합계		489	613	725	1655	1655	1208
호남권	고졸이하	6	보건, 의료 관련직	0%	0%	0%	0%	0%	7%
		11	경비 및 청소관련직	0%	0%	0%	0%	21%	20%
		14	건설 관련직	0%	0%	0%	27%	0%	37%
	대졸이상	6	보건, 의료 관련직	0%	0%	0%	0%	9%	12%
	학력별_지역간	미스매치 건수 합계		259	123	796	635	741	1594
	저숙련	11	경비 및 청소관련직	0%	0%	0%	0%	23%	28%
		14	건설 관련직	0%	0%	0%	19%	0%	36%
	숙련도별_지역간	미스매치 건수 합계		211	104	664	500	686	1387

※ 이때, 각 연도의 % 값은 각 학력-직종, 숙련도-직종 일자리에서 발생한 미스매치건수를 각 유형별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의 합계로 나눈 값이다.

직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경우 충청권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을 21~35%, 동남권에서는 13~25%, 호남권에서는 36~36%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경제권별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그 밖에도 환경, 인쇄, 목재(고졸이하의 일자리, 저숙련 일자리)와 농림어업 관련 직(고졸 이하 일자리), 동남권에서는 환경, 인쇄, 목재(고졸 이하 일자리), 기계 관련 직(대졸 이상 일자리), 식품가공 관련 직(저숙련 일자리), 호남권에서는 보건, 의료 관련 직(고졸 이하 일자리, 대졸 이상 일자리), 경비 및 청소 관련 직(고졸 이하 일자리, 저숙련 일자리)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높게 발생하였다(표 4-2 참조).

이렇게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지역에서 고졸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역의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해당 광역경제권 내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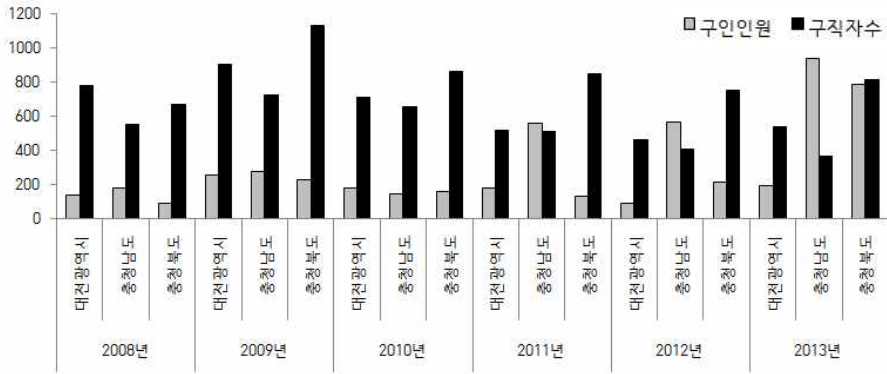
시와 충청북도, 동남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선호 지역에는 구직자들이 몰리고, 기타 지역에는 오히려 구인인원이 더 남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간 구직자수의 격차로 인해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지역의 고졸이하, 저숙련 일자리에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공통적으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난 고졸 이하 일자리 건설 관련 직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다. 먼저 충청권을 보면 구직자들이 충청남도에 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있는 건설관련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모두에서 구직자수가 구인인원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간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건설관련직의 구인인원이 증가하였고, 구인인원이 구직자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직자들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건설관련직에서는 구인난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의 건설관련직에서는 구직난이 발생하는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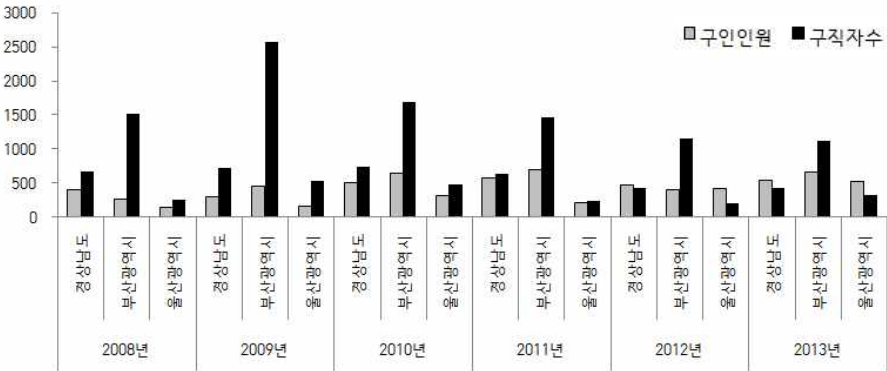
다음으로 동남권의 건설관련직을 보면 구직자들이 부산광역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에도 구직자 수가 구인인원보다 높아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에 구직자수가 구인인원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을 보면 구직자들이 전라북도에 몰려있는 경향이 강한데, 2011년과 2013년에 광주광역시에 건설관련직에서 구인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구직자들은 전라북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충청권_고졸이하_건설관련직



동남권_고졸이하_건설관련직



호남권_고졸이하_건설관련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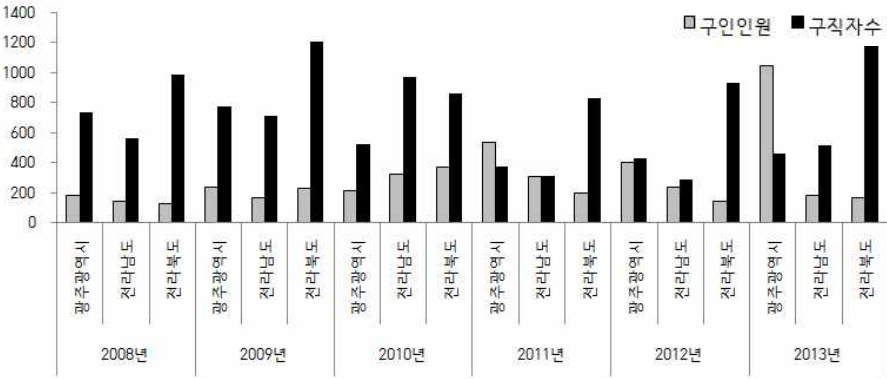


그림 4-5. 시도별 건설관련직의 구인인원, 구직자수

3. 소결

본 장에서는 일자리를 학력-직종, 숙련도-직종별로 유형화하여 각 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의 공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 간 미스매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졸 이하 일자리에서 대졸 이상 일자리보다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보다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경제권 별로 보면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을 함에 있어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동남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에서는 모든 광역경제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모든 지역에서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구인인원을 넘어서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가 높게 나타는 데 비해, 수도권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 건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인인원, 구직자 수,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이므로 수도권에서 어떠한 형태의 구조적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 간 미스매치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실업자 수가 많은 수도권의 구조적 미스매치 특성을 파악한다면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1.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실업자 수 추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2008~13년 동안 일자리 유형별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일자리에서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가 대졸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숙련 일자리의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가 고숙련 일자리의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1 참조). 이를 다른 광역경제권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5-1]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졸 이하 일자리에서 대졸 이상 일자리보다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보다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숙련 일자리에서 구인인원, 구직자수, 실업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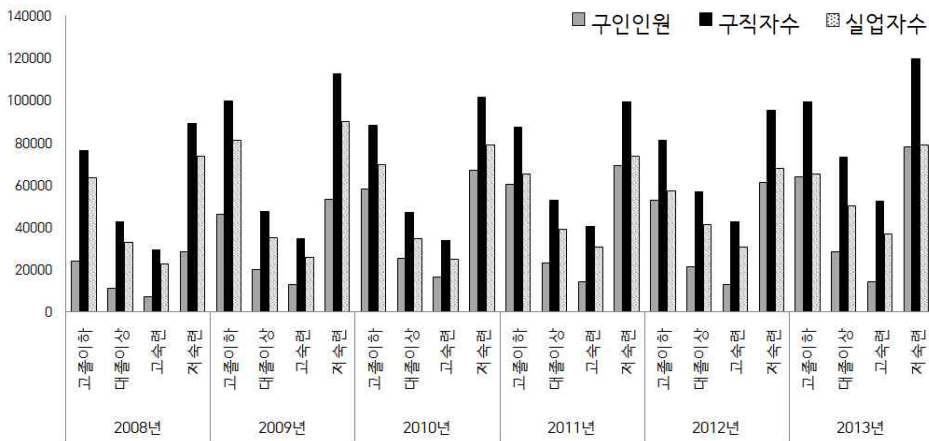


그림 5-1.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유형별 구인·구직·실업자 수

2. 학력·숙련도별 직업 간 미스매치 분석

수도권의 경우 일자리(소분류)를 이동하면서 실업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를 전체 일자리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5-2]와 같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직업 간 미스매치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소 감소하는 시기가 있지만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직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특정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선호 직종에는 구직자들이 많아 실업이 발생하고, 비 선호 직종에서는 오히려 구인인원이 남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다른 광역경제권에 비해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졸 이상의 구직자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실업에서 직업 간 미스매치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 1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1 참조). 이는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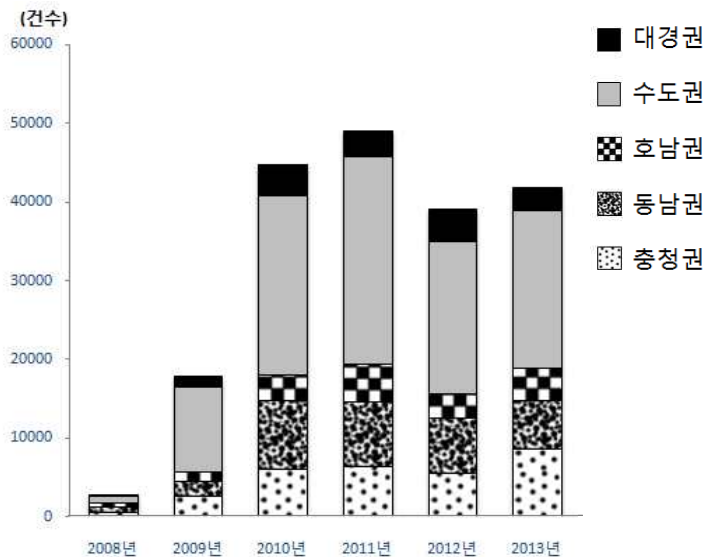


그림 5-2. 전체 일자리에에서의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표 5-1.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직업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경권	152 (1%)	1320 (4%)	3882 (15%)	3365 (14%)	4066 (24%)	2896 (12%)
동남권	693 (2%)	1918 (4%)	8739 (24%)	8281 (26%)	6985 (27%)	6122 (20%)
수도권	859 (1%)	10804 (9%)	22771 (22%)	26243 (25%)	19324 (20%)	20020 (17%)
충청권	710 (4%)	2646 (10%)	6078 (33%)	6498 (33%)	5652 (35%)	8769 (50%)
호남권	460 (2%)	1240 (5%)	3283 (17%)	4787 (29%)	3131 (17%)	4119 (15%)

※ 이때, () 안의 수치는 각 광역경제권에서 발생한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를 해당 광역경제권에서 발생한 실업자 수로 나눈 값이다.

려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직업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2008년에는 1%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에 9%, 2010년에 22%, 2011년에 25%, 2012년에 20%, 2013년에 17%로, 비록 2012년과 2013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직업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체 실업의 0%인 반면, 직업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17%나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는 구직자들의 구직반경이 넓어 선호하는 직종을 구하는 데 있어 서울에만 있는 일자리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구직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역을 옮겨서 실업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고, 직종 자체를 옮겨야지만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직종을 옮겨야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자리를 고졸 이하의 일자리와 대졸 이상의 일자리,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로 유형을 분류를 한 후에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였다. [그림 5-3]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일자리에서 대졸이상의 일자리보다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보다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졸 이상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에서는 해당 일자리의 대부분의 직종

에서 구직자수가 구인인원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직업 간 미스매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는 구직난이 발생하고 있는 직종도 있고, 구인난이 발생하는 직종도 있기 때문에 직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실업상태를 해소하고 싶다면,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 유형 내부에서 직종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학력과 숙련도를 낮추어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 유형으로 이동하여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 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직종을 유지한 채로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닌, 학력과 숙련도를 낮추어서 직종을 이동하여 구직활동을 한다면, 다른 광역경제권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수도권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광역경제권에서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지역에서도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학력과 숙련도를 낮추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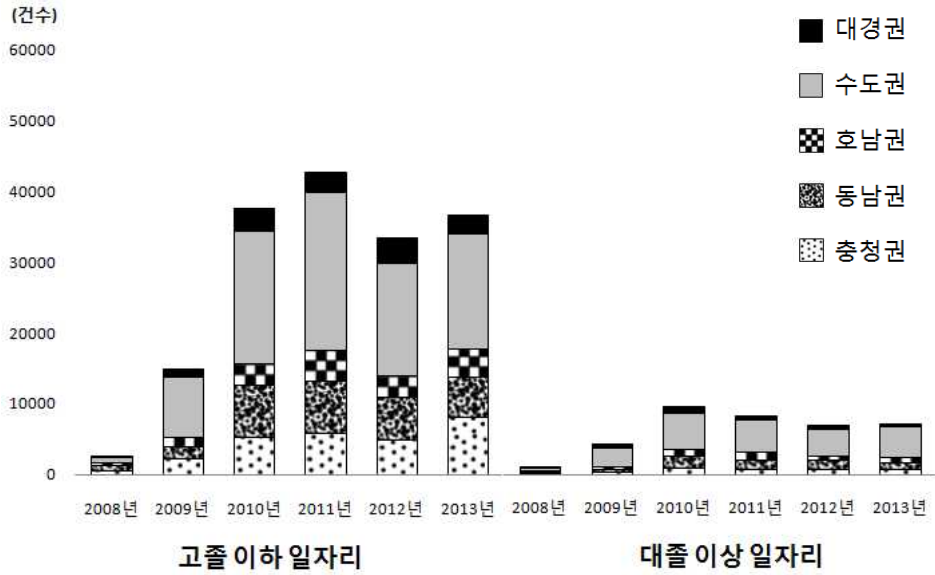


그림 5-3. 고졸 이하·대졸 이상 일자리의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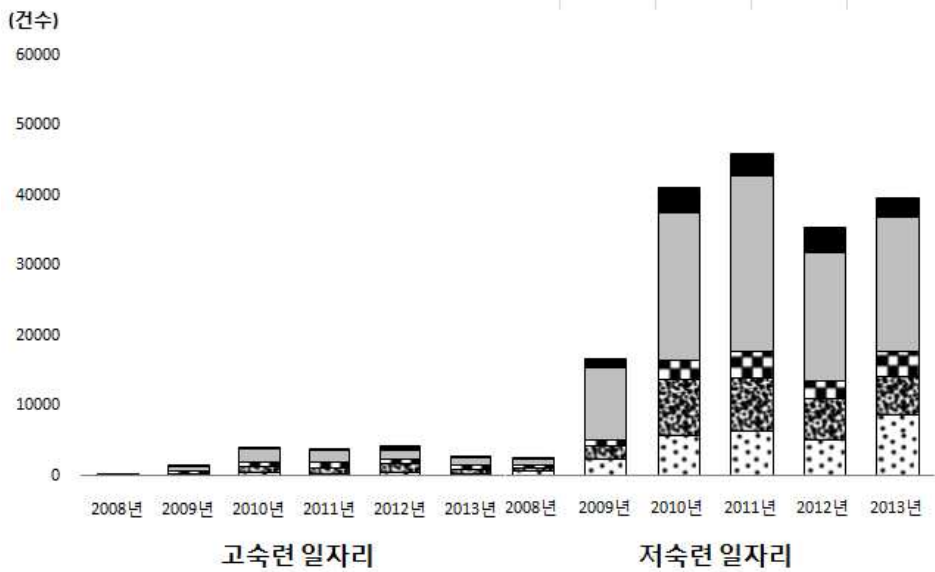


그림 5-4. 고속련·저속련 일자리의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

3. 소결

본 장에서는 Armstrong & Taylor(1981)와 오오하시(2006)의 방법을 이용하여 직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분석하였다.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할 때 2008~2013년 직업 간 미스매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이 다른 광역경제권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서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서울, 인천, 경기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구직자들은 단순히 직종을 유지한 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직종 자체를 옮겨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자리 유형별로 분류한 후에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에서 대졸 이상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보다 직업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 내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구직자수가 구인인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는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가 높게 발생했는데 이는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구직자들이 많이 몰려 구직난이 발생하는 직종도 있지만 구직자들이 몰리지 않아 구인난이 발생하는 직종도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력과 숙련도를 낮추어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로 이동하여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더불어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계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008-13년 동안 지역 간 미스매치와 직업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구직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특정 직업과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 강해졌지만,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넓게 퍼져 있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의 저숙련, 고졸 이하의 일자리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많이 발생했으며, 수도권에서는 저숙련, 고졸 이하의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일자리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직업 간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졸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지역별로 선호하는 구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의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은 선호 직종이라도 특정 지역에 몰려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동남권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에서는 구직난이, 기타 지역에서는 구인난이 발생을 하는 공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고졸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은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도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한다. 따라서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과 같이 동일 직종 상에서 지역만 옮겨서는 실업을 해소할 수 없으며 직종을 옮겨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일자리 유형별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졸 이하의 일자리에서 대졸 이상 일자리보다 직업 간 미스매치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학력과

숙련도를 낮추어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로 이동하여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지역 간 미스매치와 직업 간 미스매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업문제를 다룸에 있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실업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실업을 유발하는 주된 구조적 실업 요인이 다르다.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의한 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미미하지만 직업 간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높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일괄된 계획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 해소 대책과 같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계획을 세운다면 더 많은 실업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자리 유형과 구직자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실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의 전체 일자리에 대한 지역 간 미스매치 감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의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서의 지역 간 미스매치 감소 대책을 세운다면 더 많은 실업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의 특정 일자리 유형에 맞춘 실업 계획을 세운다면 더욱 효율적인 실업 대책이 될 것이다.

셋째, 구조적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계획과 더불어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실질적인 양을 늘리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지역과 직종에 따라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의 직종과 지역에서 구직난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력과잉현상이 심해지는 현실과 맞물려져 있으며 현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상황에서는 대졸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이 학력과 숙련도를 낮추어 직업을 이동을 해야만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실업 감소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미스매치를 줄이려는 계획과 더불어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의 경우 고졸 이하의 일자리와 구직자가 대졸 이상의 일자리와 구직자보다 많이 측정되고, 저숙련의 일자리와 구직자가 고숙련의 일자리와 구직자보다 많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워크넷의 특성상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대졸 이상, 고숙련 구직자들보다 워크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학력과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와 구직자들이 워크넷이 아닌 개별적 루트를 통하여 구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적 미스매치를 분석함에 있어 직업과 지역을 동시에 이동하여 실업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직업 및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워크넷 구인구직」 자료는 개인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업 및 지역 간 미스매치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미스매치와 직업 간 미스매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이 중 일부는 지역과 직업을 동시에 옮겨야 실업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향후 개별 단위의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구조적 미스매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2011), 「2011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균(2010), 「청년층 구직자 프로파일링 분석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김용현(2012), 「대졸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 11(3): 47-62.
- 김을식·박경진·조무상(2009),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경기개발연구원.
- 김을식·김군수·김태경·김점산·이수진(2012), 「한국의 고용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 경기개발연구원.
- 김을식(2013),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의 특징과 추이”, 경기개발연구원, GRI연구 논총, 15(3): 263-386.
- 박유진(2014), “직종 특성별 과잉학력 임금효과 격차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배진한(2012),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과 대책”, 「경남발전연구원」, 120: 6-14.
- 양준석·전용일(2012), “한국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 :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한 결합효율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752-765.
- 양지윤(2012), 「워크넷 이용자 실태분석과 품질향상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윤윤규·배기준·윤미례·이상호·최효미·김준영·신인철·정준호(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방법론, 설정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2008),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4): 147-182.
- _____ (2011), “노동시장의 공간 미스매치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지역고용학회」, 3(1): 1-28.
- _____ (2011), “‘일자리 확산(job sprawl)’은 도시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에

-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노동연구」, 17(2): 29-67.
- 장재호·홍현균(2008), "워크넷 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구직자 미스매치 분해", 「한국고용정보원」.
- 장재호(2010), "워크넷자료로 본 일자리 매칭 :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매칭 효율성 높여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3(1): 35-56.
- 전용석·강민정(2005), "UV곡선을 이용한 실업률의 구조 분석",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2014),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2014」, 한국고용정보원.
- Covington, K. (2009), "Spatial Mismatch of the Poor : An Explanation of Recent Declines in Job Isolation", *Journal of Urban Affairs*, 31(5): 559-587.
- Glaeser, E., Kahn, M. and Chu, C. (2001), Job Sprawl : Employment Location in U.S. Metropolitan Areas, Center on Urban & Metropolitan Policy.
- Gobillon, L., Selod, H. and Zenou, Y. (2007), "The Mechanism of the Spatial Mismatch", *Urban Studies*, 44(12): 2401-2427.
- Grengs, J. (2010), "Job Accessibility and the Modal Mismatch in Detroit",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8(1): 42-54.
- Jackman, R. and Roper, S. (1987), "Structural Unemploy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1): 9-36.
- Kain, J. (1968), "Housing Segregation, Negro Employment,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2): 175-197.
- Liu, C. and Painter, G. (2011), "Immigrant Settlement and Employment Suburbanization in the US: Is there a Spatial Mismatch?", *Urban Studies*, 49(5): 979-1002.
- Ohashi, I. (2006), "The Japanese Labor Market from the Point of Mismatches",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Living Standards*

- Stoll, M. (1998), "Spatial Job Search, Spatial Mismatch, and the Employment and Wages of Racial and Ethnic Groups in Los Angel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6(1): 129-155.
- Stoll, M. (2006), "Job Sprawl, Spatial Mismatch, and Black Employment Disadvantag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5(4): 827 - 854.
- Weber, J. and Sultana, S. (2008), "Employment Sprawl, Race and the Journey to Work in Birmingham, Alabama", *Southeastern Geographer*, 48(1): 53-74.
- Weitz, J. and Crawford, T. (2012), "Where the Jobs are Going : Job Sprawl in U.S. Metropolitan Regions, 2001-2006",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8(1): 53-69.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Mismatch between Job and Job Seekers in Korea

Lee, Jeong Hy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 year, government formulates various policies to create jobs and to improve employment conditions. However, in spite of the government efforts, unemployment rate never gets to decrease. Unemployment can be resulted not only because of insufficient job openings but also due to discordance by space and occupation for job openings and job hunting. From the precedent studies conducted domestically, relatively smaller number of studies on mismatch of job opening and job seeking are developed and especially a study on spatial mismatch of job opening and job seeking is rarely conducted. In this research, spatial mismatch phenomenon is to be examined and additionally occupational mismatch of job opening and job seeking is

to be analyzed in order to both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elements, which bring about the unemployment, and produce the information essential to ease the unemployment problem.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Work-net Employment Data' and 'Occupational Employment Survey(OES)'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analyzed the mismatch of job opening and job seeking appeared in metropolitan areas from 2008 to 2013. In order to evaluate the geographical and occupational mismatch, method of Armstrong & Taylor(1981) and Ohashi(2006) was applied. Especially, in examining geographical and occupational mismatch this study characterized each job offer according to its features and attempted to find out characteristics of mismatch of job opening and job seeking by the types of jobs.

As the result of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shows, ratio of unemployment caused by geographical and occupational mismatch drastically increases from 2008 to 2013.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as the education levels of people seeking jobs increase there is a strong tendency of preferring certain region and occupation. When being examined by unit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 in the job market for less skilled or high school graduates unemployment caused by regional mismatch occurred at a higher rate in Chungcheong, Dong-nam, and Ho-nam province. This is because spheres of the preferred regions for job seekers, who are less skilled and whose education level do not exceed high school diploma, to work in are different by unit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

However, in case of metropolitan areas, geographical mismatch occurs at a low rate whereas occupational mismatch occurs at a very high rate. Simply changing a region from which jobs are offered does not re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since in metropolitan areas job

seekers whose level of education do not exceed high school diploma and who are less skilled look for jobs regardless of the preferable regions such as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it means that a job seeker can get a job only when changing the occupational type itself that he or she wants to work for. For a job that requires at least a bachelor's degree and a high skill, there is less frequent occurrence of occupational and geographical mismatch in all over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s. It can be said to reflect the reality that highly skilled job seekers and job seekers with bachelor's degree are estimated to exceed the number of jobs available in the most regions and occupations. Therefore, when they turn away their eyes to the job pool that only requires high school diplomas or low skill they get to have a chance to save themselves from unemploymen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a type of structural unemployment occurred is different between regions and occupational types. So, to deal with the unemployment problem, differentiated solution to the phenomenon to which both regional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considered needs to be established, not the uniform nationwide policy and plan.

**keywords : Unemployment, Job, Job Seekers, Structural
Mismatch, Geographical Mismatch, Occupational
Mismatch**

Student Number : 2013-22005